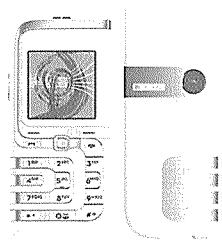


## 세계 모바일폰 판매 1분기 21%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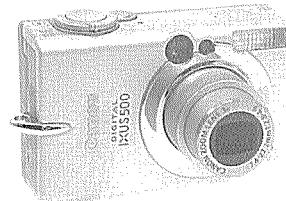
2005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폰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artner가 발표한 세계의 1분기 모바일폰 판매 실적은 1억 8,060만대로 전년 동기 1억 5,370만대에 비교하면 무려 21%의 판매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모바일폰 판매 예상대수도 7억 2,000만대에서 7억 5,000만대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2004년 대비 13% 증가한 예상 수치이다.

한편, 모바일폰의 판매 확대 추세와는 달리 개도국에서의 저가 모바일폰 수요 증대와 선진국시장에서의 공급지간 경쟁 격화로 인해 모바일폰 소비자 공급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 공급자의 이익구조는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모바일폰 제조업자는 별 써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올해중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폰 제조업자간의 통폐합 등 구조 재편이 격렬히 진행되리라는 전망이다.



## 베트남 디지털카메라 시장 급신장

베트남에는 현재 20여개의 디지털카메라 브랜드와 100여개의 모델이 치열한 경쟁중이다. 디지털카메라 브랜드로는 Canon, Nikon, Kodak, Olympus, Konica, Fujifilm, Pentax, Sony, Panasonic, Sanyo, Epson, HP, Samsung 등이 있으며, 매년 다양한 기능의 신모델이 100여개 이상 출시된다. 아마추어용 모델은



300~500달러 선이고, 전문가용 모델은 1,000~8,000달러 사이이다.

가장 인기 있는 4개 브랜드는 Cannon, Nikon, Fujifilm, Sony이다. Cannon과 Nikon이 전문가용으로 선호되고, Fujifilm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Sony는 브랜드파워, 품질, 디자인, 애프터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군은 4.0~6.0메가픽셀, 300~500달러 사이의 제품이다. 다른 여타 전자제품처럼 디지털카메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신모델이 출시되면 구모델은 20~30%가 하락한 가격에 판매된다. 2.0~3.0메가픽셀급 모델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다.

2003년에는 약 5만대, 2004년에는 약 10만대의 디지털카메라가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2005년에도 비슷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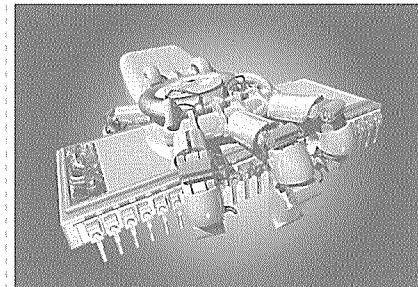
디지털카메라의 수입관세는 20%로 최근에는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발생하고 있다. Sony는 2003년 호치민시 인근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디지털카메라 생산공장을 설립하였고, Sanyo는 동나이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 연간 100만대, 2007년 500만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 중국·인도 반도체시장 대폭 성장할 것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업체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의 짱뚱모어 회장은 니혼게이자

이신문이 주최한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5년 후 중국대륙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10배 성장할 것이며, 인도도 거대한 반도체 시장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언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짱뚱모어 회장은 동세미나 강연 중 주로 BRICS 신흥시장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동회장은 현재 중국과 인도의 반도체 산업이 급속히 부흥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은 매우 글로벌화, 보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기술 보편화의 반증으로 미국이 50여년간 구축한 반도체 기술을 일본이 25년 만에 따라왔고, 대만과 한국이 15년 만에 따라왔음을 지적하며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기존 반도체 기술 보유국을



추격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금년도 2/4분기 이후 반도체의 공급 과잉과 PC 수요 둔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BRICS 지역 특히 중국 및 인도의 반도체 수요는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3년도 기준, 세계 반도체 3위의 반도체 수요국가로 전세계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이다. 중국이 전자기기의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2009년경에는 전세계 IC 수요의 25%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중국이 제1의 반도체 수요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히타치, HDD무장착 보안컴퓨터 발매

히타치제작소는 5월 23일, 하드 디스크 장치가 없는 컴퓨터의 제 2 탄으로 현행 모바일 노트북에 비해 저렴한 A 4 노트북과 데스크톱의 라인업을 확대, 6 월부터 발매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사는 컴퓨터의 분실 및 도난에 의한 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HDD를 내장하지 않고 외부 기억매체의 접속도 불능한 모바일 노트북형「보안 PC」를 판매하고 있는데 기업 정보센터의 서버에 접속하여 소프트 및 데이터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용 후 컴퓨터에 데이터가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경쟁사들은 데이터의 HDD 암호화 보존을 제안하고 있으나 고객들은 암호화된 컴퓨터는 분실해도 보안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도 안심하지 못하고 HDD 무장착 기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동사는 이번에 저가 모델로 HDD 무장착 컴퓨터를 투입하면서 정보센터에 설치하는 「클라이언트 블레이드」도 발매 예정이다.

종래에는 HDD 무장착 컴퓨터 수십 대를 정보센터의 서버에 접속하는 「센터 형」의 운영을 베이스로 하였으나 개별 컴퓨터 상태를 정보센터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액세스 집중시에는 속도가 떨어지고 하드웨어 차이로 인한 소프트의 작동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요르단 휴대폰시장 폭발적 증가세



현재 요르단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약 150만 명 정도로서 전 인구의 26%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요르단의 휴대폰 서비스는 1995년 Fastlink가 유럽 방식인 GSM900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Fastlink는 2003년 전체 지분의 96.5%를 인수한 쿠웨이트 계 통신업체인 MTC(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ny)의 소유이며 전체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Fastlink는 WAP(무선통신응용규약)를 상용화함은 물론 모바일뱅킹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최근에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를 활용한 차세대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등 휴대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번째로 휴대폰 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Jordan Telecom(JT:요르단 통신공사)의 자회사인 MobileCom으로서 2000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JT는 1997년 민영화되었으며 프랑스텔레콤(FT)이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 운영을 맡고 있는데 선진기술 도입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obileCom은 첨단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웨덴의 Ericsson과 협조하고 있다. 현재 MobileCom의 시장 점유율은 약 32%로서 Fastlink를 추격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이 급속도로 신장됨에 따라 휴대전화 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현재 연간 휴대전화 수요는 약 70만대이며 10%

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Nokia가 전체 시장의 60% 점유,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급속도로 침식하면서 15%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 외에 모토롤라가 10%, 지멘스와 에릭슨이 합해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사우디 컴퓨터시장, 노트북이 데스크톱 압도

사우디 PC 시장 수요가 Desktop PC로 급선회하고 있다. 노트북이 desktop PC와 성능이 동일해졌고 휴대하기 쉬우며 무선작동 및 뛰어난 디자인에 따라 사우디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노트북의 수요가 향후 수년간 두자리 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Data Corp.는 2005년도에 사우디의 PC 총 수요가 23% 증가하며 노트북은 134%, Desktop은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Desktop과 비슷할 정도로 낮춰진 가격이다. 중동 지역의 노트북 가격은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인데 일반 노트북은 SR3,500~5,000이며 고기능 제품은 SR6,000~12,000 또는 그 이상이다.

